

114년전 牛痘 실시한 첨단과학의 선구자

우두 첫보급 池錫永

朴星來 <외국어대인문대학장/과학사>

이달의 문화인물로는 우두를 이땅에 처음 보급한 지식영(池錫永, 1855~1935)이 뽑혔다. 그가 우두를 처음으로 실시한 것은 1879년 12월이니, 지금부터 1백14년 전의 일이다. 우두가 시행된지 1백년을 기념해서 1979년 10월에는 한독 의학박물관에서 지식영기념전시회와 강연회가 열린 일이 있다. 마침 때를 맞춰 같은 때에 세계보건기구(HWO)는 지구 상에서 천연두(마마)가 사라졌음을 공표하기도 했다.

천연두 퇴치한 의학자

지금은 얼굴 엷은 사람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곰보」란 현상이 거의 흉될 것도 없을 정도로 얼굴 엷은 사람이 많았다. 아니 얼굴에 자국만 남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마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일종의 통과례(通過儀禮)인 양 여겨졌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한참 더 살아갈 수 있으려니 생각할 정도로 마마의 피해란 극심했다.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전염병의 하나였던 마마, 또는 천연두는 동양에서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서운 전염병이었고 근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맨 처음 천연두에서 해방되기 시작한 것은 1798년 영



◇ 池錫永 선생

국 의사 에드워드 젤너가 우두법을 개발해 보급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한국의 젤너로 명성

지식영은 젤너의 우두법을 처음으로 국내에 체계적으로 소개 보급하여 1세기 만에 이땅에서 가장 무섭던 전염병 천연두의 피해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그의 우두보급 50주년에 해당하던 1928년 12월6일 서울에서는 그 사실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 일이 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즈음해서 <동아일보>는 논설에서 지식영을 「조선의 젤너」라고 선언한 일이 있다. 그가 아직 74세로 생존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한국의 젤너」 지식영은 서울 낙원동에서 중인 집안의 4남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가난한 선비 池翼龍이었고, 그의 셋째형 지운영(池運永, 뒤에 雲英, 1852~1935)은 아우 못지 않게 우리 역사에 유명하다. 지운영은 당대의 뛰어난 화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김옥균을 암살하겠다고 일본에 가서 암약하다가 돌아온 것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가 우두법을 익히기 시작한 것은 朴永善으로부터 일본의 우두책을 얻어 보면서부터의 일이었다. 1876년 나라 문을 처음으로 열게 된 조선왕조는 그 첫 사절로 김기수를 일본에 파견했는데, 이때 박영선은 그를 수행해서 일본에 간 것이었다. 일본에서 박영선은 우두법을 대강 익히고, <種痘龜鑑>이란 책을 얻어 가지고 귀국했던 것이다. 박영선으로부터 이책을 얻어 자습한 지식영은 우두에 크게 흥미를 느꼈지만, 독학만으로 우두를 시험할 수는 없었다.

생각다 못한 그는 이미 부산에서 문을 열고 있던 일본병원을 찾아가, 그곳에서 1879년 10월 우두에 대한 공부를 더 하게 되었다. 2개월간의 실습과 공부로 우두를 익힌 그는 12월말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처가가 있는 충주에 들러 장인의

허가를 얻어 2살짜리 처남에게 우두를 실시해 성공했다. 소문이 퍼지자 그 마을 40명의 어린이에게 우두를 시술했다. 한국 최초의 우두 성공의 예가 된다.

2살 처남에 우두실험

그러나 일본인 의사에게 얻어온 우두 약(痘苗)이 떨어지자, 그는 그 약을 만드는 방법부터 배울 필요를 느껴, 1880년 수신사(修信使) 金弘集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서 보다 본격적인 수업을 했고 1882년 봄 金玉均이 일본에 갈 때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1882년 여름 임오(壬午)군란이 일어나 반일(反日) 분위기가 퍼지자 일본에서 우두를 배워다가 보급시킨다는 지석영에게는 체포령이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곧 사태는 진정되고 이듬해 9월에는 박영효의 형으로 전라도 어사로 나가있던 朴泳敎의 부탁으로 全州에 처음 우두국이 설치되었다. 이어 公州에 우두국이 설치되어 그 기술이 정식으로 교육되어 우두 보급이 정부 사업으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1885년 지석영은 <牛痘新說>을 지어 우두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런데 그와 그의 형은 1887년 5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귀양을 가게 된다. 형제가 김옥균과 내통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의 형 지운영은 바로 그 전해에 일본에 건너가 김옥균을 암살하겠다고 기회를 엿보다가 일본 관헌에 알려져 강제 출국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형제는 개화파 여러 인물과 가까웠던 것이 사실이어서, 지운영이 김옥균 암살에 나섰다는 것부터가 의심스런 구석이 있기는 하다. 여하튼 김옥균을 암살하려 했다는 부분과 김옥균 일당으로 체포되어 귀양가게 된다는 대목은 서로 잘 맞지 않는 역사의 수수께끼이다.

귀양 가 있는 동안에도 그는 의학문제에 관심이 계속되어 1888년 중맥설(重麥說)이란 글을 썼다. 여름의 가뭄에도 상관없이 잘 기를 수 있고 영양도 많은 보리와 밀을 많이 먹지는 주장을 담은 책이다. 1891년 전라도 강진의 신지도에서 풀려나온 그의 의학보급 운동은 더 열심히 계속되었다. 특히 1894년의 갑오개혁으로 우두와 의학보급 운동은 더 활력을 얻게 되었다.

그가 일본 갈 때 수행했던 김홍집내각이 들어서자, 지석영은 벼슬자리를 얻기 시작하여 형조참의, 동래부사, 중추원의관 등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주 관심은 여전히 의학에 있었다. 갑오개혁의 한 부분으로 1894년 7월 내무아문에 위생국(衛生局)이 생긴 것은 우두 보급의 파급효과였다. 그리고 이어서 1898년 6월에는 처음으로 종두의(種痘醫)양성소가 생겨 초빙한 일본인 교사가 50명의 청년에게 우두 방법을 교육하기에 이른다.

한성의학교 초대교장

바로 이때 종로에서는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가 열렸는데, 이곳에서 여론은 우리나라에도 의학교를 시작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도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꾀잡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결국 의학교육의 시작이 급하다고 판단하여 1899년 한성의학교가 설립되고 첫 교장으로 지석영이 임명되기에 이른다. 얼마 전까지 창덕여고가 있던 종로구 재동이 그 장소였고, 그는 나라가 일본에 망하기까지 10년 남짓 이 학교 교장으로 한국의 초기 의학교육의 지도자로 일했다. 뒤에는 대한의학교로 이름이 바뀐 이 학교에서는 1903년 첫 졸업생 19명을 배출했다.

지석영은 한국 근대사에서 우두 보급과 의학교육에서 너무나 뚜렷한 공을 남긴 인물이다. 1902년 고종은 그의 공을 인정하여 훈5등에 8괘장(八卦章)을 수여했고, 1908년과 1910년에도 팔괘장과 태극장(太極章) 등의 훈장이 수여되었다.

그는 의학사에만 이름을 남긴 인물만도 아니다. 그는 1882년 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책을 추천하는 상소문을 올린 것으로 역사가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특히 개화에 필요한 책과 정보 그리고 기계 등을 한곳에 모아 개화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훈련원(訓練院)을 만들자는 주장을 내기도 했다.

지석영은 특히 초기의 한글학자라도 이름을 뚜렷이 남기고 있다. 周時經과 함께 가로쓰기를 주장한 선구자였고, 한문만 쓰기 때문에 문명 개화가 느리다면서 한글사용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신정국문> <언문> 등의 책을 냈고, 1907년에는 국문(國文)연구회를 조직하는데 주역을 담당했다.

그는 또 1897년의 상소문에서 음력을 다시 쓰고 양력은 곁에 표기만 하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1년 전에서야 쓰기 시작한 양력을 버리고 다시 음력 중심으로 나가자는 그의 주장은 그의 주체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나라의 부강(富強)을 위해 과학기술은 모두 서양 것을 배울 수밖에 없지만, 부강과 관계없는 것만은 우리 옛 것을 지켜야 옳다는 생각이었다.

<이달의 문화인물> 지석영은 우리 역사에 우두를 이땅에 널리 보급하여 1세기 이내에 천연두를 박멸한 인물로, 근대 의학교육을 이땅에 처음 뿌리내리게 한 공으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들어오는 전환점에서 개화의 선구자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